



ISSN: 2950-8835 © 2022 KODISA & JKR  
JKR website: <http://www.jkr.or.kr>  
doi: <http://dx.doi.org/10.13106/jkr.2022.vol1.no1.37>.

## A Study on the Currency circulation of Myeong-do-Jeon in Gojoseon\*

Jung-Hwa SEO<sup>1</sup>, Myoung-Kil YOUN<sup>2</sup>

1. First Author Adjunct lecturer, Department of Spatial Design, Seoul Institute of the Arts Korea.

Email: saeam111@naver.com

2. Corresponding Author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College of Health Industry, Eulji University, Korea,  
Tel: +82-31-740-7292, Email: retail21@hanmail.net

Received: March 15, 2022. Revised: April 15, 2022. Accepted: June 15, 2022.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how Donggi People in ancient societies resided in the region including the Korean Peninsula shaped its economy, what kind of currency was used, and their economic activities using this currency. This study started from a skeptical point of view that the Donggi People were conducting economic activities with the currency used in the country made by the Jina People before and after the Gojoseon society. Currently, in China, all currencies issued in China are treated as their own currency. It is due to subjective interpretation from a nationalist point of view. Japan subjectively interprets and judges from a Japanese point of view and North Korea judges from the central point of view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difference is due to the subjective interpretation from the researcher which has been affected by their associating academic area. This has caused the lack of objectivity. In other words, it means that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the interpretation of history between different academic areas. This study, therefore, tried to avoid the application of biased concept or academic research in order to define the distribution economics more objectively by conducting the study based on the literature sources from Chinese ancient books and field research materials as much as possible, as the study and research conducted based on the domestic sources are insufficient in the sense that there is a gap between different perceptions and interpretations. As a conclusion of this study, the excavation area of Myeong-do-jeon is perfectly consistent with the old river area of Gojoseon, and in particular, considering Gojoseon was in the hostile relationship with Yan, it was found that only Myeong-do-jeon was used without using any other Chinese currency in the entire Gojoseon area, not just some areas. It is also a decisive clue to prove that it is not the Yan currency.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n developing the discussion different from the current research and study is that there was a lack of exploration and investigation of various documents and relics. For future research, this study will become more meaningful when it is conducted simultaneously with the discovering of new documents as well as the relics.

**Keywords:** Gojoseon, Currency Circulation, Myeong-do-jeon, Jina People, Donggi People

**Major classifications:** Economic history

---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the KODISA Scholarship Foundation in 2022.

© Copyright: The Author(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반도를 비롯한 고대사회 동이족(東夷族)이 경제권을 형성하고 거주하던 지역에서 어떠한 화폐를 사용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활동을 하였는지를 논의하고자 함에 있다. 지금까지 고조선(古朝鮮) 사회 이전 및 이후까지 동이족이 화폐를 사용함에 있어서 지나족(漢族)이 만든 국가에서 사용하는 화폐로 경제활동을 영위했다는 데에서 의구심을 갖고 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현재 중국에서는 중국 지역에서 발행된 화폐는 동이족의 화폐조차도 모두 자신의 화폐로 취급하고 있다. 중국학계가 동북공정(東北工程)을 통해 기자동래설(箕子東來說)을 또 다시 끄집어내어 고조선의 문화 독자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서영수, 2006). 그것은 국가주의적인 관점에서 주관적으로 해석함에 기인한다. 일본도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한다. 북한은 한반도 지역주의적 중심관점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학문적인 주관성으로 객관성이 결여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 즉, 그 사이 역사의 해석에 대한 인식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사학적 관점이 어떤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주류학계에서는 객관성을 갖고 바라본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재야 사학계에서는 일본의 국가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본다고 여긴다. 즉, 신민사관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해석하고 있다고 여긴다. 왜냐하면, 국내 주류역사학자들이 일제식민지 시절에 조선사편수회 등 활동을 했던 역사학자가 남한 사학의 주류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선입견이 형성되어 있다. 특히, 이들이 연구하는 논문의 인용지수를 보면 압도적으로 한반도의 식민지화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일본국가주의적 관점을 가진 일본학자들의 연구결과를 따르고, 이들의 연구를 인용하기 때문이다.

## 2. 연구의 방향과 기존연구 분석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편협 된 사고나 편협 된 학문을 탈피하고, 건강한 유통경제사를 정립하고자 한다. 따라서, 고대사회에서의 화폐유통이 언제부터 사용되어왔으며, 중국의 화폐인지 고조선 화폐인지에 대해 고문헌을 비교 분석하고 실증자료를 통하여 동이족이 중심이 된 고조선을 다룸에 있어서 사료와 유적출토의 결과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동아시아지역의 고서를 인용함과 해석함이 관점에 따라 차이가 크다. 뿐만 아니라 선형적으로 문헌에 근거하여 고조선의 영역을 규정하다 보니 그 영역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고조선으로 규정하려는 논지는 허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최대한 중국고서의 문헌 사료와 실물자료를 대상으로 한 고고학적 조사자료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박선미(2005)에 따르면, 고조선 시기 한반도 서북부와 중국 동북지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화폐유적의 경우, 유물 갯춤새와 유구 등에서 여러 집단에 의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 관자(管子)에 따르면, 고조선(古朝鮮)은 BC. 7세기 제(齊)나라와 교역을 했다는 점, 그리고 1980대 이후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에서와 동일한 화폐유적이 꾸준히 발견되면서, 명도전(明刀錢)유적과 세형동검 유적의 분포범위가 일부 중첩되고 있다는 점과 화폐 출토 유구와 출토 유물에서 세형동검 문화와 동일한 지역에서 발견된다는 친연성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외 기원전 7세기의 화구(貨具) 출토와 연결시켜 고조선의 명도전 사용을 긍정하였다. 또한, 세죽리 연화보유형의 문화를 연나라의 영향 하에서 보급된 것으로 보면서도 요하 청천강 일대에서 출토되는 명도전에 대하여 토착민들이 소유하였던 화폐일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견해가 발표되기도 하였다(이청규, 2002). 이와 같이 고고학과 문헌사적으로

접근해보면 고조선의 화폐유통에 관한 관련 자료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폐를 주조하는 거푸집이 한반도 북부지역에서만 몇 개 발견되고 있으며, 고문헌과 유물 및 유적으로 화폐가 활발하게 유통되었음에도 아직 고조선의 화폐를 부인하는 일부학자들이 있다. 이와 같이 일부 다른 학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하여, 고조선의 시기와 강역에 대해 구체적 발굴된 유물과 여러 사료를 바탕으로 고조선사회의 화폐유통에 대한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져서 본연구를 진행한다.

### 3. 고조선 화폐의 현황

고조선의 최초 화폐로 볼 수 있는 것은 둥근 구멍을 뚫어 사용한 카우리 조개 화폐라 할 수 있다. 인하대 융합고고학팀은 하남시 정주 이리두 유적과 내몽고 하가점 하층문화 유적 발굴 이후에 조개 화폐의 사실성을 입증한바 있다(김칭우, 2014).

중국문헌인 사기 오제본기에 조선이 하나라에 조공했다고 나오는데, 이에 반하여 단군세기에는 오사구 단군(BC2137년)때 하나라에서 조공을 바쳤고, 구을 단군(BC2096년)때에도 하나라에서 사절이 왔다는 기록이 있다(안경전, 2020). 또한 이러한 사실은 고대중국의 여러 나라와 교역을 했다는 것을 뜻한다.



출처: 김칭우(2014).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24838>

**Figure 1:** 카우리 조개

진(晉)의 진수(陳壽)가 편찬한 삼국지(三國志) 속에 들어 있는 사서(史書)인 위지동이전(三國志魏志東夷傳)에서 기자(箕子)가 낙랑조선에 왔을 때 8조금법(八條禁法)이 이미 있었다고 했는데, 그 중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소유주의 집에 잡혀 들어가 노예가 됨이 원칙이나, 자속(自贖:배상)하려는 자는 50만 전을 내놓아야 한다(相盜, 男沒入爲其家奴, 女子爲婢, 欲自贖者人五十萬)”이라는 기록이 보인다. ‘50만전’이라는 화폐단위가 보이는 것은 고조선의 화폐사용이 보편화된 나라임을 시사하고 있다. 고조선의 8조금법(八條禁法)은 진(晉)나라의 위지동이전에 8개가 전해지고, 한서 지리지에도 3개가 전해진다. 그리고 이 시기는 단군조선 이후의 조선(기자조선)시기이며, 기자는 중국의 주나라에서 망명한 사람이다(김정배, 2011). 즉, 주나라의 건국이 BC.1046년으로 볼 때 조선은 BC.1100년대부터 이미 주조화폐가 있었던 것이다. 또, 변진(弁辰)에서 철을 돈과 같이 사용한다는 송(宋, 420~479)의 범엽(范曄, 398~445)이 편찬한 후한서(後漢書) 동이열전(東夷列傳)의 기록은 한반도에서도 화폐사용을 보여주는 사료이다. 한편, 리순진, 장주협(1973)은 일화전이 고조선 주민들 사이에 유통된 돈의 일종이라 하고 그리고 윤내현(2016; p220)은 일화전과 명화전이 고조선 화폐일 가능성이 높다고 기술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고조선지역은 중국의 여러 나라와 활발하게 교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업이 발달하여 고조선사회 안에서 활발하게 주조화폐를 사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고조선의 주조화폐는 다음과 같다.

### 3.1. 원공패전(圓孔貝錢)

서기전 2133년에 주조한 원공패전은 단순히 둥근 구멍이 뚫린 조개가 아니라 조개모양의 주조(鑄造)된 화폐를 말한다. 주조(鑄造)란 쇠를 부어 만든 것으로 즉 구리(銅)나 철(鐵) 또는 구리와 철 등의 합금을 불로 녹여서 모양을 만든 것이 된다(안경전, 2020). 그리하여 원공패전은 역사기록상 처음으로 나타나는 조개모양의 주조화폐로서, 구리(銅)나 청동(靑銅)으로 만든 것이 되었으나, 최근 인하대 융합고고학팀이 중국 요서지방의 하가점하층 문화에서 납으로 주조한 조개모양의 화폐를 발견하였다(김칭우(2014)).

단군세기의 5세 오사구단군 재위 시(BC. 2133)에 주조한 원공화폐의 기록과 일치한다. 발굴한 조개화폐의 제시는 단군세기의 주조기록의 사료적 가치를 시사한다.



출처: 김칭우(2014).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24838>

Figure 2: 원공패전

### 3.2. 자모전(子母錢)

서기전1680년에 주조한 자모전(子母錢)은 자전(子錢)과 모전(母錢)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음(子音)과 모음(母音)의 글자를 새긴 화폐라는 의미가 된다. 고조선의 화폐 중 가장 오래된 옛 금속화폐는 자모전(子母錢)으로 고조선 흥평왕 원년(기원전 975년 갑자)에 최초로 철전(鐵錢)으로 제조됐다고 기록되었다(안경전, 2020).

조선 후기 실학자 한치윤(韓致堧, 1765년~1814년)이 19세기 초기에 펴낸 해동역사(海東譯史)에서 “수유국 대 흥평왕 원년(BCE 957년 갑자)에 자모전을 사용했다” 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수유국은 고조선을 말한다. 이는 동국사략(東國史略)과 같은 내용이다. 그러나 이제껏 실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사료 부족으로 금속화폐인지 비금속인지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철전이라고 기술되었기에 금속화폐로 여겨진다. 또한 우리나라 화폐사에서 돈 '錢'자가 사용된 것도 자모전이 처음인데, 한 종류의 화폐이름인지 자전(子錢)과 모전(母錢)의 합칭인지도 확실치 않다. 두 종류일 경우 그 시대 화폐제조의 관습으로 보아 자전은 소전(小錢)으로 가벼운 경전(輕錢), 모전은 대전(大錢)의 중전(重錢)급이 아닌가 한다.

### 3.3. 패엽전(貝葉錢)

단군세기에 보면 구모소 재위 10(서기전1426)년 을해년에 패엽전을 주조하였다고 한다. 주조된 패엽전(貝葉錢)은 조개모양이면서 잎사귀모양이 되는 동전화폐가 되는데, 서기전2133년에 주조된 원공패전보다는 퍼진 모습으로 납적한 모양이 된다. 후대에 소위 엽전이라는 말은 여기서 유래되는 것이 된다. 출토되는 유물로 패엽전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자모전(子母錢)처럼 화폐에 글자를 새겼을 것이나 철전(鐵錢)이어서 부식이 잘되어 유물로 출토되지 아니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8조금법(八條禁法)에 나오는 50만전은 작은 크기의 화폐여야 하므로 패엽전으로 추측된다.

### 3.4. 방공전(方孔錢)

서기전643년에는 방공전(方孔錢)을 주조하였는데, 네모 모양의 구멍이 뚫린 화폐가 된다. 철로 만든 화폐인 철전(鐵錢) 중에서 특히 명월전(明月錢)이라 불리는 화폐는 서기전 643년경 이후에 주조된 단군조선의 방공전이 된다(안경전, 2020). 대체적으로 후대에 주조된 것으로서 철전이었을 패엽전보다는 부식이 상대적으로 되지 않아 유물로 출토되는 것으로 보인다. 후대에 소위 엽전이라 불리는 화폐의 모양이 대체적으로 둥근 모습에 네모 모양의 구멍이 뚫린 것이 되는데, 이는 패엽전과 방공전의 모양이 혼합된 것으로 된다.

### 3.3. 명도전(明刀錢)

명도전(明刀錢)은 서기전 500년경에 청동으로 도자(刀子)를 본떠서 만든 도자형 청동화폐이다. 고조선의 중심지역인 동북부 지역뿐만 아니라 변방지역인 한반도에서도 많이 출토되고 있다. 전국시대 초기 도전(刀錢)인 첨수도(尖首刀)에서 바뀌어서 발행된 것으로 표면에 ‘명(明)’자 또는 ‘역(易)’자 비슷하게 표시되어 있어서 명도전 혹은 역도전(易刀錢)라고 불리기도 한다. 칼 모양으로 뒷면에는 숫자·간지(干支)·좌(左)·우(右)·행(行)·제화(齊化) 등의 문자가 있으며, 그 종류도 다양하다. 길이 12.4~13.5cm, 너비 1.5~1.9cm, 무게 12~19g 정도이며 손잡이 끝에는 3줄의 직선문양이 길이로 표기되어 있다.

윤내현(2016: pp458-459)은 명도전을 중국의 전국시대의 화폐로 규정하기는 했지만, 윤내현(1989)은 명화전, 일화전을 고조선화폐라고 주장했다. 고조선 화폐의 종류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고조선 화폐의 종류

종류	주요내용
원공패전(圓孔貝錢)	서기 전 2133년에 주조한 원공패전은 단순히 둥근 구멍이 뚫린 조개가 아니라 조개모양의 주조(鑄造)된 화폐
자모전(子母錢)	서기 전 1680년에 주조한 자모전(子母錢)은 자전(子錢)과 모전(母錢)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음(子音)과 모음(母音)의 글자를 새긴 화폐
패엽전(貝葉錢)	서기 전 1426년에 주조된 패엽전(貝葉錢)은 조개모양이면서 잎사귀모양이 되는 화폐
방공전(方孔錢)	서기 전 643년에는 방공전(方孔錢)을 주조하였는데, 네모 모양의 구멍이 뚫린 화폐
명도전(明刀錢)	명도전(明刀錢)은 통상 서기전 500년경 이전에 주조된 청동 도자(刀子)를 본떠서 만든 도자 형

	청동화폐, 고조선 멸망 후 평양 정백동 3호분(周古墓)에서 2개 발견(박선미, 2008a)
명화전 (明化錢)	고조선 강역에서 발견된 화폐(윤내현, 1989; 윤명철, 2020)
일화전 (一化錢)	내몽고자치구 동남부와 대릉하 유역에서 발견된 화폐(리순진, 장주협, 1973; 박선미(2009b; 윤내현, 1989; 윤명철 2020)

## 4. 명도전의 화폐유통 현황과 분포

### 4.1. 명도전에 대한 기존 논의

#### 4.1.1. 고조선의 강역

먼저, 고조선의 강역라고 할 수 있는 범주는 크게 대동강 중심설, 요동 중심설, 이동설에 따라 다르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는 북한학계가 그 동안 주장했던 요동 중심설을 포기하고 단군릉 조영을 계기로 대동강 문화론을 강조하고 있는데(이순진, 장수진, 서국태, 석광준, 2001), 서영수(2006)는 고조선의 중심을 대동강 유역으로 보기 시작하였던 것은 고려시대부터이며,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보다 체계화되어 오늘의 학계에 계승되었다고 보았다.

두 번째는 요동중심설이다. 1920년대의 민족주의 사학자들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이해되지만 처음 제기된 것은 조선시대부터이며, 60년대 이후 최근 대동강 중심설로 선회하기 이전까지 북한학계의 주류를 이루던 학설이다.

세 번째는 이동설이다. 비파형동검(琵琶型銅劍), 다뉴문경(多紐紋鏡), 미송리형토기(美松里型土器), 지식묘 등 고고학적 유물의 분포와 문헌사료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는 요동에 있었으나 4~3세기경에 대동강유역으로 이동하였다는 이른바 이동설이 제시되어 80년대 이후 대표적인 견해로 자리 잡고 있다. 이동설은 신채호를 필두로 천관우, 김정학, 김정배의 선구 업적이 뒤를 이었으며, 80년대 이후 더욱 체계화되었다(박준형, 2012; 서영수, 2006; 오강원, 1997).

서영수(2006)가 정리한 고조선 형성시기는 고고학적 연구성과와 문헌사료에 기초하여 당시 명확히 확인된 시기로 선고조선(왕국)시기 1~2기와 고조선 왕국 전기-중기-후기로 설정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선고조선은 기원전 10세기 후반~8세기, 전기는 BC.8~6세기 정치체 조선국의 등장과 齊와의 文皮교역(『管子』)시기, 중기는 BC.5~4세기 철기 보급이 시작된 중원의 전국시대, 후기는 BC.3~2세기 대동강유역 중심의 진(秦)과 한(漢) 제국과의 항쟁기이며 위만조선의 등장과 고조선의 붕괴 및 준왕의 남천(史記, 鹽鐵論, 前漢紀, 魏略)시기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다시 정리하자면, 고조선의 가장 유력한 지표문화인 요녕지역의 출토 유물인 비파형동검문화를 중심으로 각 지역간의 교섭관계를 검토하였고, 체계화한 선고조선왕국 시기는 동검문화 2기(BC.9세기 중반~8세기 중반) 이전에 해당되며, 고조선왕국 시기는 비파형동검문화의 3-5기(BC.8세기 중반~ BC.4~3세기) 전반에 해당된다.

단군신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조선 왕국 전기는 신석기 문화 전통을 강하게 지닌 초기청동기사회이며, 성읍국가 형태를 띤 일종의 신정국가(神政國家)이다. 고조선의 국호 '조선' 명칭이 문헌사료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전국시대에 편찬된 『관자』인데 『관자』의 편찬시기가 기원전 4세기 이후이다. 『관자』가 관중에 가탁하여 전국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책이라 하더라도 제한공과 관중의 사적까지 임의로 추정하여 기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추정되기 때문에, 제와 원거리 교역이 이뤄지는 것은 BC.7세기에는 이미 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서영수, 2006).

제나라 등과 무역을 비롯한 평화적 교섭관계를 유지하던 고조선과 중원 제국과의 관계는 동북아에 철기문화가

확산되는 전국시대에 들어가면서 첨예한 대립관계로 전환되었다. 위략(三國志, 卷30)에 의하면, “연(燕)이 칭왕하자 조선후도 스스로 왕호를 칭하고 군사를 일으켜 연을 쳐서 주 왕실을 받들려 했는데, 대부예(大夫禮)가 간하므로 이를 중지하고 예를 파견하여 연을 설득하니 연도 전쟁을 멈추고 조선을 침략하지 않았다.” 고 한다. 여기에서 고조선이 전국 7웅의 하나인 연과 각축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주(周)왕실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이후 통일제국 진이 등장하자 고조선은 진과 요동을 두고 맞서게 되었다(사마천 사기, BC. 109-91 추정). 그리고 당시 후퇴지역은 『사기』 『진시황본기』의 “땅이 동쪽으로 바다에 이르러 조선과 접하였다.”는 기록과 한초에 “패수(溟水)를 건너 망명하여 진의 옛 땅인 상하장(上下障)에 거주하던 위만에게 준왕이 100리의 땅을 봉해 주고 고조선의 서변을 지키게 하였다.”는 『위략』의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고조선이 진에게 상실한 영역은 대체로 만변한, 즉, 천산에서 압록강에 이르는 땅으로 볼 수 있으며(서영수, 2006), 이것으로 고조선 중기(BC.5~4세기)에는 천산에서 압록강에 이르는 지역이 고조선의 강역이었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보태어, 카우리 조개 화폐의 하남시 정주 이리두 유적과 내몽고 하가점 하층문화 유적으로 보았을 때, 선고조선왕국(단군조선)시기(BC. 2100년경~ BC.1500년경)부터 화폐사용과 중국과 교역이 이뤄지고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 4.1.2. 화폐의 사용과 주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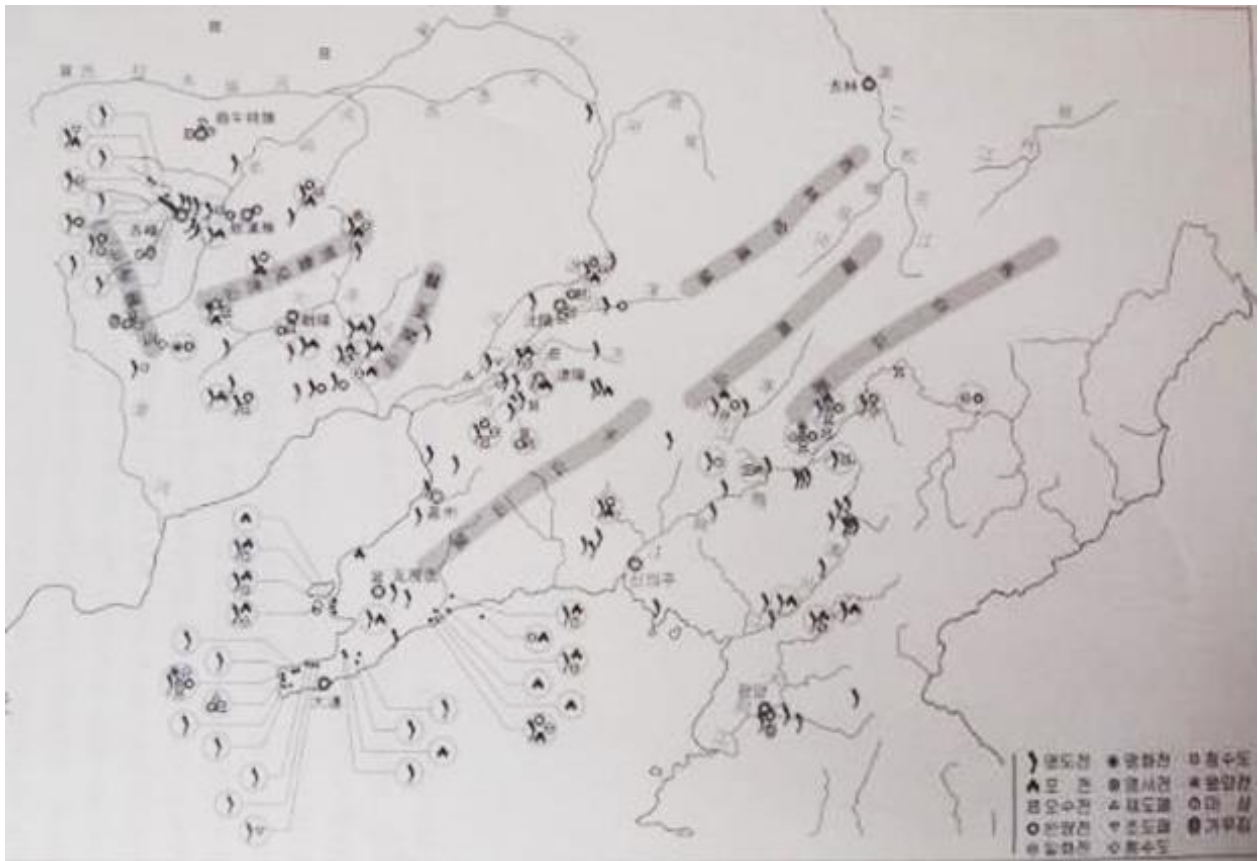
화폐가 많이 쓰이고 주조된다는 것은 상업의 성행과 보편적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조선 전기 관자 규도편(管子 揆度篇)에는 제환공(BC.8~6세기)과 관중의 대화 중에 해내(海內) 7대 옥폐(玉幣) 중의 하나로 고조선의 문피(文皮)가 언급되고, 제와 고조선이 일찍이 중계무역(배후지교역)을 했다고 본다(김철준, 1977; 송호정, 2017). 박선미(2009b)는 문피를 산지에서 구해서 취합하는 소매상과 관련된 유적으로 위원 용연동과 관전쌍산자(寬甸 雙山子) 유적을 들고 있고, 문피를 가공하거나 취합해서 공급하는 중개인 관련 유적으로 환인추수동(桓仁 抽水洞) 유적을 들고 있다. 소매상은 주변에 별다른 주거의 흔적이 없이 교통로 근처에서 확인되는 유적, 중개자는 수계에 위치하며 산간지역에서 다소 거리가 있는 소형 주거 유적을 특징으로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유적의 특징을 살펴보면 중국지역의 각 나라의 화폐는 고조선의 화폐보다 늦게 발행되었다. BC.1122년에 시작된 주(周)나라는 방족포(方足布) 등을 주조하였으며 각 제후국들에 유통된 것이 되고, 이후 주나라의 제후국인 제(齊)나라에서 주조된 도폐(刀幣)인 제법화(齊法化), 제지법화(齊之法化)는 제나라가 왕을 칭한 BC.334년경 이후에 발행된 것이 되며, 안이지법화(安易之法化)는 BC.319년경에 발행된 것이 되고, 연(燕)나라 도폐는 연나라 세력이 강해진 연소왕 시대가 되는 BC.312년경 이후에 발행된 것이 된다. 제나라 도폐인 제반이시결신지법화(齊返易始結信之法化)는 제나라가 다시 세력이 강해진 BC.279년경에 발행된 것이 되고 이후 제반이시결신지법화(齊返易結信之法化)가 발행된 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제나라와 이미 교역을 하면서 문피를 거래하던 시기가 고조선 전기인 BC.8~6세기이며, 후기 고조선 흥평왕 원년 기원전 975년에 철전으로 기록된 자모전(子母錢)을 고조선의 정식 화폐로 보더라도 연나라의 연소왕 시대의 BC.312년경보다는 먼저 발행되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흥국가인 연나라와 쇠약해진 고조선과는 BC.3세기 경 잦은 전쟁이 있었고, 전쟁을 하면서 상업이 많이 쇠퇴하면서 화폐를 대량 주조할 수 없어서 그 당시에는 주조량이 급속하게 줄어들기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4.1.3. 화폐의 발굴

고조선 건국시기 무렵의 주변 국가와 영토에 출토된 유적지를 살펴본다면, 박선미(2009b; pp155-162)는 중국의 동북부와 한반도의 서북부 일대에서 전국시대~ 진, 한 초 시기의 화폐로 추정되는 포전, 명도전, 일화전, 반량전, 오수전의 5대 화폐가 출토되었다고 하였다.

박선미(2009b; pp155-162)의 주장에 따르면, 내몽고자치구 동남부와 대릉하 유역은 5대 화폐와 백인도폐, 명사전이 출토되었다. 백인도폐는 조도폐의 일종으로 적봉 마고산 유적에서 명도전, 포전과 함께 승문의 회색단지 안에 들어있었다고 하며, 파영자고성에서 포전, 명도전, 일화전도 함께 출토되었다. 하지만, 요하유역에서 천산산맥 서북부, 요동반도의 경우 5대 화폐 위주로 출토되었고 명도전과 함께 매납 유적의 형태로 발견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압록강유역에서 한반도 서북부의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출토 화폐의 종류가 단조로운 편이라는 설명이다. 비율적으로 볼 때, 전체 유적에서 각 화폐가 차지하는 비율은 명도전이 가장 많으며, 적과 매납 유적으로 구분하여 볼 때 요동반도의 경우 명도전의 매납이 월등히 높은 수치로 나타난다는 것이다(박선미, 2009b). 이 시기로 추정되는 화폐의 유적 분포도는 그림 1과 같다.



출처: 박선미(2009b; pp155-162)

Figure 3: 중국의 동북부와 한반도의 화폐 유적 분포도

화폐의 유적은 요동반도 남단에 몰려있다. 생활유적보다 매납 유적이 압도적이다. 청동기시대 돌무덤 전통이 계속되고 있으며, 유물갓춤새에서 세형동검 문화요소가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며 초기 세형동검과 명도전이 적석묘에서 공반되기도 한 것으로 볼 때 고조선의 토착문화가 이 권역에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위만조선과 한나라의 화친체제인 '외신의 약'과 대한무역의 독점, 오랑캐에 대한 위만조선의 패권 장악, 흉노세력의 전성기에 요하를 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지역은 고조선이 수행한 교역의 거점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고조선의 존속시기에 변방지역인 한반도 중부 이남에서는 청동주조화폐가 출토되지 않으나, 고조선의 멸망시기인 BC.1 세기에는 고조선세력이 한반도로 이동하면서 화폐 출토 양상에 변화가 나타난다.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는 주로 평양 일대 분묘유적에서 출토되며, 변방인 중부 이남지역의 여러 유적에서도 화폐가 출토되기 시작한다. 이는 포전, 명도전, 반량전 등 전국시대~진한 초의 화폐가 한반도 서북부를 중심으로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 유역에 산재되어 출토됨에도 중부 이남에서는 출토되지 않는 것과 대조된다(박선미, 2008a).

이와 같은 화폐출토 양상의 변화는 BC.1 세기 고조선이 멸망 등 정치적 변동의 시기를 겪으면서 이전과 다른 한반도 내부 교역체계의 변동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도전이 고조선화폐가 아니다 라고 주장한 대표적이 연구는 다음과 같다. 주상(2003: pp21-26)은 대릉하 유역의 경우 춘추시대의 제작된 철수도를 전국시대 연과 제나라가 영향을 받아 각각 명도전과 제도폐를 주조했다는 견해를 제기하였다. 가장 오래된 연구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 학자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1948)의 朝鮮考古學研究이다. 세키노 다케시(關野雄)(1965)는 한반도 서북부 명도전 유적의 성격을 퇴장유적(退藏遺蹟)으로 파악하였으며, 아키야마 신고(秋山進午)는 연이 중국 동북지방으로 진출했던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로 보았던 것이 바로 그것이다. 윤내현(2016: p217)과 박평석(2018)은 중국의 화폐 가운데 가장 널리, 오랫동안 활용되었던 것이 바로 연(燕)에서 발행된 금속 화폐인 명도전(明刀錢)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내현(2016)이 명도전은 청천강 이북지역에서만 출토되고 그 이남지역에는 출토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유로 연나라 화폐로 규정하였는데 고조선의 강역에 대한 해석에 오류가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Table 2:** 명도전에 대한 논의

구분	주요연구
연나라 화폐라는 주장	박평석(2018), 세키노 다케시(關野雄)(1965), 아키야마 신고(秋山進午), 윤내현(2016), 주상(2003),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1948)
고조선 화폐라고 주장	강인욱(2011), 박선미(2000), 박선미(2001), 박선미(2005), 박선미(2008a), 박선미(2008b), 박선미(2009a), 성삼제(2005), 이준한(2021), 이덕일, 김병기(2006: p204-205)

둘째, 명도전이 고조선화폐라고 주장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북한의 연구자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명도전과 그와 유사한 아류에 해당하는 명화전, 일화전 등의 화폐는 고조선 주민 사이에서 통용되었던 고조선 고유의 화폐라고 주장한다(윤명철, 2020). 국내에는 연나라 화폐라기보다는 2000년대에는 중국 동북부와 한반도 서북부의 화폐 관련 유적 연구를 종합하여 명도전과 고조선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 일대 유적에서 발견된 문화 유형의 다양성을 들어 이 일대는 한족, 북방 유목 민족, 예맥족 등이 집거하는 곳이었고, 명도전은 다양한 민족이 서로 집거하는 가운데 고조선이 수행한 교역의 증거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한편 고조선과 관련된 몇 안 되는 역사자료를 바탕으로 고고학 자료의 성과를 접목시켜 고조선이 원거리 교역을 하였다는 것과 명도전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연구가 다수 발표되기도 하였다(박선미, 2000; 박선미, 2001; 박선미, 2005; 박선미, 2008a; 박선미, 2008b; 박선미, 2009a; 강인욱, 2011; 성삼제, 2005; pp148-158). 이준한(2021: pp233-236)은 고조선 지역인 요동반도인 요동반도 인근에서 화폐를 발행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의 명도전 연구는 명도전이 단순히 중국의 세력 범위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초창기 견해를 극복하고 고조선과 중국의 여러 왕조(齊, 燕, 秦, 漢 등) 간의 교역 활동의 매개물로 이해하는 경향으로 진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압록강 유역과 한반도 서북부 일대 유적에서 발견된 명도전 주형(鑄型, 거푸집)과 명도전 출토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고조선에서 명도전을 직접 주조하여 통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의 교역은 물론 내지 교역에서도 적극 활용하였다는 견해가 제기된 한편, 유적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고조선의 명도전 통용은 대외 교역에 국한되었을 뿐이고 명도전 주형은 고조선 멸망 이후의 것으로 조선의 중국 교역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박선미, 2000).

이덕일, 김병기(2006)에 따르면, 연나라의 도성인 계현은 오늘날의 북경 부근이다. 그러나 명도전은 이 부근에서 소량 출토되고 오히려 난하 동쪽에서 압록강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대량 출토되고 있다. 따라서, 명도전은 연나라 화폐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종래 그림인줄 알았던 고대 바위그림에서 문자를 찾아낼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성삼제, 2005). 결정적으로 명도전에 새겨있는 명(明)이라는 글자는 연나라가 있었던 전국시대 문자와 금문(金文)의 그 글자 모양이 서로 다르다(박선미, 2009a; 황석전(2001). 고조선에서는 해와 달을 나타내는 조(朝)에서 파생되어 나온 글자로서 곧 단군조선을 가리키는 상징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폐에 명(明)이라 새겨진 것은, 주나라 제후국이었던 연제조(燕齊趙)의 화폐가 아니라, 해달(朝) 또는 밝달(明月)의 나라인 단군조선(檀君朝鮮)에서 직접 주조하여 발행한 단군조선의 화폐가 된다는 사실이다(성삼제, 2005).

#### 4.2. 명도전에 대한 논의 정리

고조선 사회에 통용한 화폐는 문헌에 의하면, 여러 화폐가 발행되었고, 또한 이를 중국지역 동북부지역과 한반도지역에서 광범위한 유적을 통하여 입증된 자료를 중심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특히, 명도전은 출토된 숫자와 그 지역이 중국동북지역과 한반도가 압도적으로 많다. 오히려 고조선 땅이었던 연나라지역 외에는 이외의 중국지역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즉, 그 출토 영역은 한반도와 요동 지방이 대부분으로, 이것은 완전히 고조선의 영역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전술된 바와 같이, 거푸집이 평양 외에 중국 동북부 위주로 발견된다고 해서 연나라 화폐라고 단정 짓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거푸집은 고조선의 중심지역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주로 안 나오고 중국 동북부지역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조선사 편수회에서 논리를 비판 없이 받아들여서 정립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로 또 하나는 연나라의 존속기간이 불과 100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출토되는 화폐 량은 그 이전과 그 이후 멸망 때까지 지속적으로 존재했다는 점이다. 즉, 고조선 강역에 속하는 유적지에는 다량의 명도전이 출토되고 있다는 점이다.

#### 4.3. 명도전의 고조선화폐라는 논의 정리

명도전이 고조선화폐라는 논의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조선의 영역에 대한 검토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종전의 국내 주류 연구자의 주장에 따르면, 고조선의 영역은 이북 평양 및 요동반도를 넘지 않았다는 주장했다. 따라서 그 서북쪽에 위치하였던 연(燕) 나라의 명도전이 고조선의 경제적 물물대체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확인된 바로 고조선 강역은 평양 이북으로부터 동북3성 그리고 하북성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을 통치하였다는 것이 정설이다. 따라서 연나라의 영역이 요동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고조선 강역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고조선 화폐인 것이다. 참고로 연나라는 연(燕) 장성(長城), 현 하북성 서부)까지 넘어오지 못했으므로 연나라가 주체가 되어 명도전을 통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Table 3:** 명도전이 고조선화폐인 이유 도출

구분	주요내용
영역적인 차원	고조선 강역은 평양 이북으로부터 동북3성 그리고 하북성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을 통치->고조선 강역에서 발견
국경선 차원	연나라가 침략한 지역이 고조선의 일부 지역-> 고조선의 경제는 연나라보다 크고, 예측되지 않음
청동주조술 차원	고고학적 발굴성가로 보면, 청동기시대의 국가생성설을 뛰어 넘는 시스템이 갖춰진 나라
한사군 설치 차원	평양 일대와 요동성과 동북부 만주지역에 한나라 한사군지역 아님->명도전 대량발굴
유적에서의 출토량과 시기	동북3성과 요동, 하북에서 대량으로 발굴, 연나라 시기 전후에도 발굴됨
발굴범위 측면	고조선의 영역과 정확히 일치-> 평안남도 이북에서 시라무렌강, 요하, 천진, 산동 북부까지

둘째, 연나라가 침략한 지역이 고조선의 일부지역이라는 점이다. 경제의 논리로 본다면, 통치의 국토의 강역에서 동일한 통화를 이용하는데, 만약 고조선에서 연나라의 화폐인 명도전이 사용되었다면, 고조선의 경제는 연나라보다 작은 나라이고, 또 연나라의 경제에 예측되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연나라와 고조선은 자주 전쟁을 치른 나라이고 연나라가 고조선을 지배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셋째, 청동 주조술이 고조선이 중심국이라는 사실이 유적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조선은 대륙에서 제일 오래된 신석기 문화를 기본으로 하는 내몽골 지역의 하가점 후반기 문화인 홍산문화를 이어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의 고고학적 발굴성가로 보면, 청동기시대의 국가생성설을 뛰어 넘는 시스템이 갖춰진 나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발굴 유물을 통하여, 고조선의 청동기는 기원전 2500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이다. 참고로, 한국의 주류사학계는 일제 강점기의 일본학자의 영향을 받아서 과거부터 한국 청동기의 연대는 기원전 7세기를 넘을 수 없다고 단정하여 왔다. 특히, 최근 북한의 평양지역에서 발견되는 청동기는 기원전 4,000년 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뉴세문경의 경우뿐만 아니라 발견되는 세문경의 무늬는 현대기술로도 어려운 정교한 주조 기술이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든다면 청동거울의 뒷면에 폭 0.3mm의 선이 일만 개 이상이 새겨진 주물 거울도 있다. 이러한 기술을 가진 고조선 사회가 기존 주류사학자들이 주장하는 명도전이라는 화폐주조 기술이 없었다면 하는 가정은 의미가 없어진다.

넷째, 한사군이 고조선지역에 설치되었다면 한나라 화폐인 반량전이 왜 안 나오는 지를 파악해야 한다. 원래 한나라의 도량형과 화폐구조는 진나라의 진시황이 도량형을 통일한 이후로 그 체제를 답습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한나라가 고조선을 정복하고 고조선 지역에 한사군을 수 백 년간 두었다면, 평양 일대와 요동성과 동북부 만주지역에 한나라의 화폐가 발견되어야 하는데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섯째, 명도전의 유적에서의 출토량과 시기를 볼 때, 연의 존속 기간인 기원전323-기원전220으로 100년의 기간만 나오지 않고, 다른 시기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연의 존속 기간 동안에 통용되었다고 할 수 없을 무수한 명도전이 동북3성과 요동, 하북에서 대량으로 발굴되고 있다. 중국동북부지역에 가면, 2,000여 년 전 화폐가 기념품 가게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연나라가 고조선보다 경제대국이 아닌 이상 당시 기준 2000여 년 전부터 내려왔던 고조선의 화폐경제를 100년 동안에 바꾸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여섯째, 명도전의 발굴범위에서도 고조선화폐라는 점이다. 명도전의 발굴범위는 고조선의 영역과 정확히 일치한다. 평안남도 이북에서 시라무렌강, 요하, 천진, 산동 북부까지이다. 강 하구보다는 내륙지방에서 더 많이 발굴 출토된다.

결론적으로, 고리가 등근 형태의 명도전은 중국 연나라 것이 아닌 고조선의 화폐인 것이다. 중국의 역사학자는 동북공정의 관점으로 바라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조선의 것이라는 사실을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논리가 고조선 강역이 현대 중국지역에 있으니, 중국의 지방정권의 화폐로 주장하고 있다.

## 5. 결론

본 연구의 결론으로 명도전의 발굴지역은 비파형동검, 고인들이 발견되는 고조선의 옛 강역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특히 연나라와 적대관계 있는 상태에서 일부 지역도 아닌 고조선 전 지역에서 유독 중국의 다른 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명도전만 사용했다는 것은 연나라 화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단서이기도 하다.

한편, 중국 흑룡강성에서 발행하는 고고학계 학술지 <북방문물> 2004년 제4기 논문집에는 장보찬 교수가 쓴 '명도폐연구속설'이 실려 있다. 장보찬(張博泉)은 "북방문물"의 2004년 논문집 중 명도폐(明刀幣) 연구에서 명도전은 고조선의 화폐의 가능성을 크게 주장하였다. 특히 그는 기원전 7세기 전부터 기원전 3세기 무렵까지 만주지역에는 3종류의 화폐가 있었는데 '첨수도' '원절식도전' '방절식도전'이라 했다. 이러한 사실은 국내 주류사학자들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그는 2000년에 작고했다. 명도전이 고조선 화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고조선 연구의 근본을 뒤흔들어 놓을 폭발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고조선의 세기, 고조선의 경제활동, 문자사용에 의한 문화의 발달 수준 예측에 많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명도전은 전국시대 말기 중국지역에서의 북방지역에 속한 문화가 고조선 통치지역인 한반도로 광범위하게 파급된 것을 나타내는 자료로서 유적의 연대 추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아울러 고조선과 연 사이의 활발했던 문화교류를 잘 보여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논의를 전개하면서 한계점으로 기존연구의 관점과 다른 논의를 펴는데 다양한 문헌자료나 유적의 탐방과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부족함이 있었음을 상기할 때 미래의 연구는 이를 더 발전시키고자 발굴된 유물유적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헌의 발굴과 동시에 이루어질 때 본 연구가 의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 References

- 강인옥(2011). 古朝鮮의 毛皮貿易과 明刀錢. *韓國古代史研究*, 64.
- 강인옥(2021). 반발발자 유적으로 본 후기 고조선의 교역 네트워크와 고구려의 발흥. *동북아역사논총*, 3(71), 9-54.
- 김철준(1977). 고조선사회의 정치세력의 성장. *한국고대사연구*, *한국사*(2), 124.
- 김칭우(2014). *인하대 융합고고학팀 단군세기* 입증한다. *인천일보*, 2014.06.23,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24838>
- 김정배(201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Retrieved June 13, 2022. From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08396>
- 리순진, 장주협(1973). *고조선문제연구*. 서울: 사회과학출판사.
- 박선미(2000). 기원전 3~2세기 요동지역의 고조선문화와 명도전유적. *선사와 고대*, 14, 139~166.
- 박선미(2001). 요하이동의 명도전유적과 연의 관련성 문제 검토. *전농사론*, 7
- 박선미 (2005). 전국진한(戰國秦漢)초 화폐 사용집단과 고조선의 관련성. *북방사논총* 7, Seoul, Korea: 고구려연구재단.

- 박선미(2008a). 한반도 출토 漢代 화폐와 그 의미-古朝鮮 멸망이후 삼한지역 교역체계의 변동과 관련하여. *선사와 고대*, (28), 255-291.
- 박선미(2008b). *화폐유적을 통해 본 고조선의 교역*.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박선미(2009a). 동북아시아의 交流史 復原을 위한 明刀錢의 초보적 探討. *동북아문화연구*, 18
- 박선미(2009b). *고조선과 동북아의 고대 화폐*. 서울: 학연문화사.
- 범엽(范曄, 398~445). *후한서(後漢書)동이열전(東夷列傳)*.
- 박준형(2012). 기원전 3~2세기 고조선의 중심지와 서계의 변화. *사학연구*, (108), 1-37.
- 박평식 (2018). *한국화폐사의 연구의 현황과 과제: 고조선, 삼국-조선후기*. 서울: 한국은행 용역과제 최종보고서
- 사마천(BC. 109-91 추정). 사기. (권115), 조선전55, 三國志. 卷30, 「魏書東夷傳」 「韓傳」 所引. 魏略
- 서영수. (2006). 고조선의 발전과정과 강역의 변동. *백산학보*, (76), 445-480
- 성삼제(2005). *사라진 고조선 역사*. 서울: 동아일보사.
- 세키노 다케시(關野雄)(1965). 刀錢考. *東洋文化研究所紀要*, 35, 44.
- 송호정(2017). 요서지역 고고 자료와 한국 고대사 관련 연구에 대한 재검토. *한국상고사학보*, 96(5), 155 - 182.
- 안경전(2020). *단군세기 (편역)*. 대전: 상생출판사.
- 아기야마 신고(秋山進午)(1969). 中國東北地方の初期金屬器文化の様相(下). *考古學雜誌*, 54(4), 25.
- 오강원(1997). 고조선 위치비정에 관한 연구사적 검토. *백산학보*, 2(48).
- 윤내현(1989). 명도전-고조선은 외화를 많이 보유한 부유한 나라였다. *수필한국사*, 20(11), 111-115.
- 윤내현(2021). *한국고대사*. 서울: 망권당.
- 윤명철(2020). 한국경제신문. 2020.02.07자 기사.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0020797561>
- 이덕일(2018). *리지런의 고조선 연구: 대륙 고조선을 찾아서* (해역). 인천: 도서출판 말.
- 이덕일, 김병기(2006). 고조선은 대륙의 지배자였다. 고양: 위즈덤하우스.
- 이순진, 장수진, 서국태, 석광준 (2001). *大同江文化*, 평양: 외국문출판사.
- 이준한(2021). *흙스, 고대사 비밀을 밝히다*. 서울: 북랩.
- 이청규(2002). 한중교류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청동기시대에서 철기시대까지. *한국고대사연구*, 32, 105~110.
- 주상(2003). 시론침수도; 중국화폐 2기. *중국전폐학회지*, 2, 21-26.
- 티스토리(2022). *얼(뿌리를 찾아서: 단군조선 문화제도* 27. 2022년 4월 24일자. <https://sinabrodym.tistory.com/1712>
- 한국고고학사전편찬위원회(2001). *한국고고학사전*. 서울, 한국: 국립문화재연구소
- 황석전(2001). *선진화폐총론*(pp.199-302.). 북경, 중국: 자금성출판사,